

올 수능 이과 쓸림 가속화...모평서 과탐 > 사탐 첫 역전

모평 6월 1일 실시...지원자 역대 최저·졸업생 비율 최고 재학생 강제 두드러질 듯...“재학생은 성적 변화 폭 클 것”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준비시험인 6월 모의평가가 6월 1일 치러진다. 졸업생 지원자 비율이 2011학년도 통계 공개 이래 최고치를 찍어 재학생이 강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과학탐구 영역 지원자가 사회탐구를 앞지르는 현상도 처음 벌어졌다. 수능을 주관하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024학년도 수능 모의평가를 다음 달 1일 오전 8시 40분부터 전국 2107개 고등학교(교육청 포함)와 463개 지정학원에서 동시에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모의평가에 지원한 수험생은 46만3675명으로, 작년 6월 모의평가 때보다 1만3473명 줄었다. 지원자 가운데 재학생은 37만5375명(81.0%)으로 2만598명 감소했으나 졸업생 등 수험생은 8만8300명(19.0%)으로 오히려 1만1625명 증가했다. 지원자는 역대 최저치로 떨어진 가운데 지원자 중 졸업생 등의 비율은 모의평가 접수자 통계를 공식 발표한 2011학년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직전 최고치인 지난해 16.1%보다도 2.9%포인트 상승했다. 재학생 지원자는 이번엔 처음으로 30만명대로

떨어졌다. 6월 모의평가 이후 반수생이 가세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올해 수능 응시생 가운데 졸업생 비율은 1년 전보다 더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 수능 졸업생 비율은 31.1%로 26년 만에 최고였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통합 수능에 따라 이과가 유리해지는 구조에서 이과 재학생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며 “재학생 비율이 증가해 재학생들은 이번 모의평가 결과에서 성적 변화 폭이 클 것 같다”고 말했다. 사회·과학탐구 지원자를 보면 과학탐구 지원자가 24만4993명으로, 사회·과학탐구 지원자의 50.1%를 차지했다. 사회탐구 지원자(24만3767명·49.9%)보다 많아지며 2011학년도 통계 공개 이래 처음으로 과탐이 사탐을 역전했다.

임 대표는 “이과 쓸림 현상이 본격적으로 가속했다는 뜻”이라며 “의대 정원 확대 논의, 첨단학과·반도체 학과 신설 등 이과 모집 인원 확대 등의 원인으로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6월 모의평가는 11월 16일 시행되는 2024학년도 수능의 준비시험이다. 시험의 성격, 출제 영역, 문항 수가 수능과 같다. 국어와 수학 영역은 ‘공통+선택과목’ 구조로 치러진다. 공통과목은 영역을 선택한 모든 수험생이 응시하고, 영역별 선택 과목은 수험생이 고른 1개 과목만 응시하면 된다. 사회·과학탐구 영역은 17개 과목 중에서 최대 2개 과목을 선택할 수 있다. 직업탐구 영역은 6개 과목 중 공통과목인 ‘성공적인 직업생활’을 포함해 최대 2개 고를 수 있다.

수험생은 시험장 내에서 마스크를 자율적으로 착용할 수 있으나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의 지침에 따라 확진자, 유증상자는 마스크 상시 착용을 강력히 권고받는다. 확진자들은 작년과 마찬가지로 학교 내 분리 시험실이나 시도별 별도 시험장에서 모의평가에 응시할 수 있다. 다음 달 2일 오후 9시까지 운영되는 온라인 응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응시해도 성적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온라인 응시자의 성적은 전체 응시생 성적에 반영되지 않는다. 문제와 관련한 이의 신청은 시험 당일인 다음 달 1일부터 4일 오후 6시까지 받는다. 이의 심사를 거쳐 최종 정답은 다음 달 13일 오후 5시에 확정된다. 성적표는 다음 달 28일 나온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전남대 의과대 개교 80주년 준비위 발족

내년 5월 20일 기점 3주간 행사 기념식·학술대회·체육대회·전시회 “지역민과 함께하는 행사 만들 것”



전남대 의과대학은 지난 25일 '의과대학 개교 80주년 기념사업 준비위원회' 현판식을 열었다. 정영도 학장, 안영근 전남대병원장, 김윤하 준비위원장 등 준비위원회 위원들이 참석했다. <전남대학교 제공>

전남대학교 의과대학(학장 정영도)이 내년 개교 80주년을 앞두고 준비위원회를 발족했다. 전남대 의과대학은 지난 25일 학동캠퍼스 의과대학 교수라운지에서 '의과대학 개교 80주년 기념사업 준비위원회' 현판식을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정영도 학장, 안영근 전남대학교 병원장을 비롯해 김윤하 위원장(산부인과학교실), 마성권 부학장(신장내과학교실), 주성필 교수(신경외과학교실), 정숙인 교수(감염내과학교실), 조지훈 교수(의생명학교실)와 전남대 총동창회 서해연 수석부회장 등 준비위원회 위원들이 참석했다. 준비위원회는 개교 80주년인 내년 5월 20일을 기점으로 3주 동안 ▲개교 80주년 기념식 ▲80주년 기념 학술대회 ▲학술 심포지움(교육·학생·연구) ▲동문 학술대회 및 정기총회 ▲동문 체육대회 ▲전시회 ▲학생 무등재 및 체육대회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전남대학교 의과대학 80년사(편찬위원장 박광성 교수)'를 발표하는 등 전남대의 성장과 발전을 기록함으로써 미래를 준비할 예정이다.

안영근 전남대병원장은 “전남대병원의 발전 및 원동력은 전남대인 만큼 내년 80주년 기념행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80주년 기념사업 준비위원장을 맡은 김윤하 교수는 “우리 학교를 탄생시키기 위해 피와 땀을 흘리며 희생했던 선배들의 노력과 열정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며 “80주년 행사를 통해 전남대인의 자긍심을 다시 한번 불러일으키는 것은 물론 지역

민과 함께하는 행사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전남대학교 의과대학은 1944년 5월 20일 세워진 호남지역 최초 고등교육기관으로서 지역주민들의 지원과 열망으로 설립된 광주의학전문학교를 전신으로 한다. 우리나라 의과대학 중에서 5번째로 역사가 오래됐으며, 현재까지 8 600여 명에 이르는 의학과 의료를 양성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전남교육청, 다문화 한글·문화교육 교재 개발

전남교육청이 늘고 있는 다문화 학생이 학교와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한글교육 등 맞춤형 교재 개발에 나선다. 전남도교육청은 최근 학교 내에서 다문화 학생과 일반 학생들이 언어장벽으로 인한 소통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맞춤형 한국어·문화교육 교재를 개발한다고 29일 밝혔다. 지난해 4월 기준 전남지역 유·초·중·고 다문화 학생은 1만1000여명으로 전체 학생 19만9000여명의 5.7%를 차지하고 있다. 국적은 베트남이 5374명(47.28%)으로 가장 많았으며 필리핀 1820명(16.01%), 중국 1669명(14.68%), 캄보디아 877명(7.72%), 일본 639명(5.62%), 몽골 219명(1.93%), 태국 222명(1.95%), 중앙아시아 146명(1.28%) 순이다. 다문화 학생은 자국의 학교를 다니던 중 전남

지역으로 입국한 학생을 비롯해, 부모 중 1명이 타국가 등 다양한 형태여서 수준의 차이가 발생한다. 중도 입국 학생의 경우 문화적 차이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지역 특성에 맞는 문화교육과 더불어 한글교육도 병행해야 한다. 이에 따라 교육부 등이 개발한 표준 한국어 교재를 활용해 기초 한글교육을 진행하는 한편 농어촌 등 지역 실정에 맞는 교재도 개발해 일선 학교 등에 보급할 예정이다. 학교 방과후 교육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한국어 강사를 일선 학교에 지원 한다. 부모 중 1명이 외국인인 학생은 한국에서 태어나 한글 사용은 가능하지만 부모와의 소통에 어려움이 있어 이중 언어 교육을 중점에 두고 교재 등을 개발해 배포한다. /김대성 기자 bigkim@

광주여대 청춘버스킹·야외 영화관 개최

광주여자대학교(총장 이선재)는 최근 청춘버스킹과 야외 영화관을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광주여대 유니버시아드 체육관 야외 공연장과 잔디운동장에서 진행됐으며 300명의 대학생과 지역사회 주민들이 함께했다. 청춘버스킹에는 광주여대 학생들이 직접 나서서 그동안 숨겨두었던 노래실력을 선보였다. 지역 주민들도 버스킹 공연을 관람하며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사진> 야외 영화관에서는 '알라딘'이 상영됐고 재학생과 지역주민은 영화를 보면서 추억을 되새기고, 친구들과 소통하며 여름밤의 낭만을 만끽했다. 행사에 참여하며 학생들은 “학교에서 이렇게 다양한 행사를 즐길 수 있어서 기쁘다”며 “날씨도 좋아서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라고 말했다. 지역 주민들도 “젊은이들의 열정과 에너지를 느낄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말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김윤정 학생처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지역사회와 소통하고, 학생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했다”며 “다양한 행사를 통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대학이 되겠다”라고 말했다. 이번 행사는 광주여자대학교가 지역사회와 소통하고, 학생들의 여가와 문화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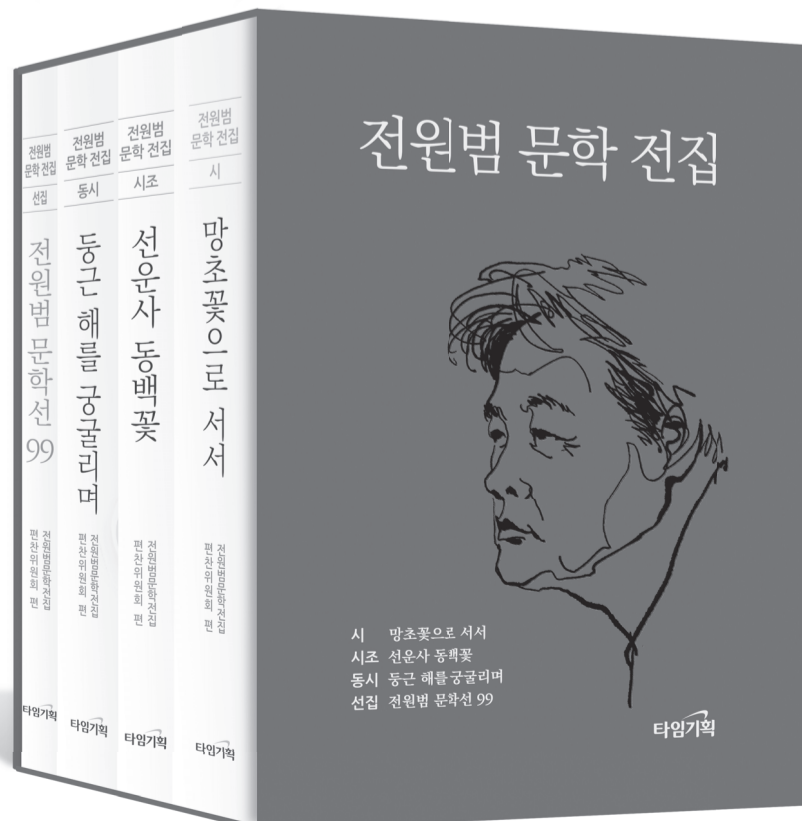
광주대, 대학운동부 평가·지원사업 7년 연속 선정

KUSF, 9700만원 지원
광주대학교(총장 김동진)가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KUSF)에서 주관하는 '2023 대학운동부 평가 및 지원사업'에 7년 연속 선정돼 9700만원을 지원받는다.

'대학운동부 평가 및 지원 사업'은 KUSF가 지난 2015년부터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 후원으로 대학 운동부의 육성 지원과 대학스포츠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는 지난 3월 21일부터 32일간 4개 평가 영역, 14개 평가지표, 42개 세부 평

가 항목으로 구성된 대학 운동부 평가지표를 통해 130개 신청대학에 대한 평가를 진행했다. 광주대는 2022년 춘계대학축구연맹전 우승을 비롯해 전국중별태권도선수권대회 메달 획득, 대학농구 준우승 등을 통해 지역 스포츠와 대학 운동부 발전 등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농구와 축구, 태권도부를 운영하고 있는 광주대는 올해 지원 사업비를 국내·외 훈련비, 대회출전비 등에 사용할 예정이다. /윤영기 기자 penfoot@

멀고 먼 옛날의 사람들은 완행열차로 떠나갔는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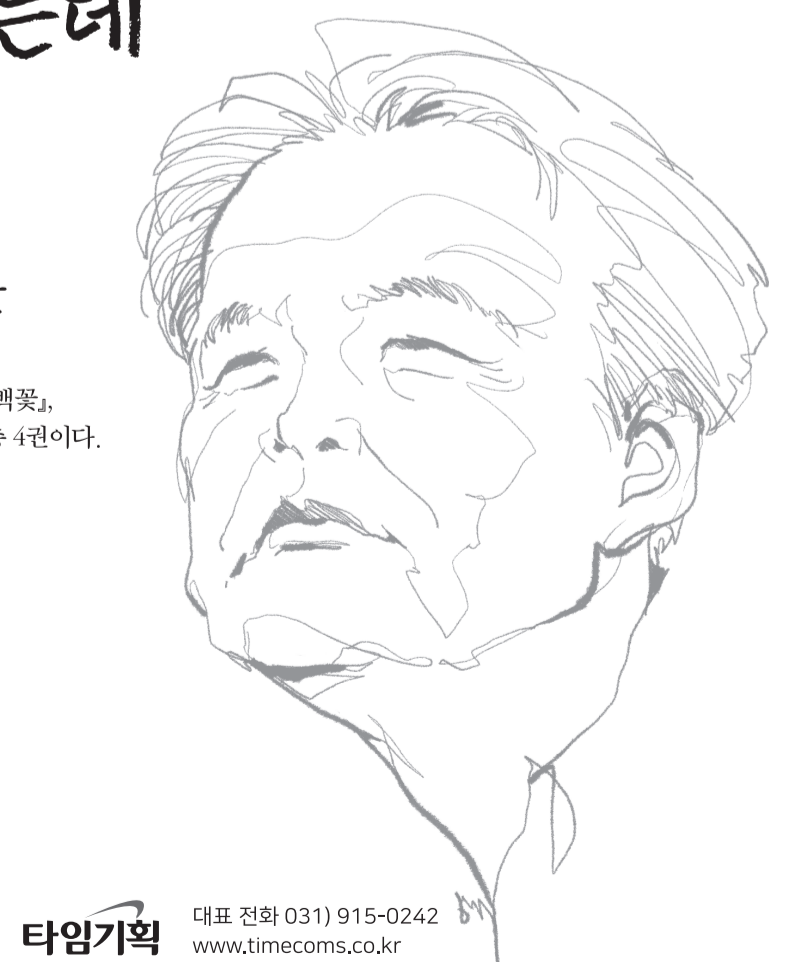
전원범 문학 인생 60년 기념 전원범 문학 전집(시·시조·동시·선집) 출간

전원범 문학 전집은 시 325편이 담긴 「망초꽃으로 서서」, 시조 214편으로 구성된 「선운사 동백꽃」, 동시 281편을 수록한 「둥근해를 공굴리며」 그리고 대표작을 엄선한 「전원범 문학선 99」 등 총 4권이다. 전 시인은 1960년대부터 동시도 시가 돼야 한다고 선구적으로 주장하고 '동심의 시'라는 개념을 정립해 오늘날 동시의 수준을 격상시켰다는 평가를 받는다. - <연합뉴스> 2023. 4. 27. 그의 시론을 압축하면 '시는 어렵지 않아야 한다. 시는 일상의 말이 아니다. 시어는 시인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해석된 말'이라는 주장이다. - <뉴스 1> 2023. 4. 29. '해의 시인'이라는 별칭은 그가 발표한 연작시 '해'에서 비롯됐다. 모두 70여 편을 썼고 해를 자신만의 관점으로 형상화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 <광주일보> 2023. 4. 26.

전원범 문학 전집 세트 총 4권, 100,000원

- 「망초꽃으로 서서」(시 전집)
- 「둥근 해를 공굴리며」(동시 전집)
- 「선운사 동백꽃」(시조 전집)
- 「전원범 문학선 99」(작품 선집)

전국 대형서점 및 인터넷 서점 판매 중



타임기획 대표 전화 031) 915-0242
www.timecoms.co.kr